

米津玄師 - Lemon Kenshi Yonezu



MV에 한국어 자막이 있다.

아래는 일본어/한국어 가사와 일본어 가사의 한국어 발음.

夢ならばどれほどよかったでしょう
유메나라바 도레호도 요캇타데쇼오
꿈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未だにあなたのことを夢にみる
이마다니 아나타노 코토오 유메니 미루
아직도 꿈에서 당신을 보고 있어
忘れた物を取りに歸るように
와스레타 모노오 토리니 카에루요우니
잊은 것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처럼
古びた思い出の埃を拂う
후루비타 오모이데노 호코리오 하라우
오래된 추억의 먼지를 털어내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を
모도라나이 시아와세가 아루 코토오
되돌아갈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걸
最後に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
사이고니 아나타가 오시에테쿠레타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르쳐 주었어
言えずに隠してた昏い過去も
이에즈니 카쿠시테타 쿠라이 카코모
말하지 못한 채 숨기고 있던 어두운 과거도
あなたがいなきや永遠に昏いまま
아나타가 이나카 에이엔니 쿠라이마마

당신이 없으면 영원히 어두운 채로

きともうこれ以上 傷つくことなど
킷토 모오 코레이쥬오 키즈츠크 코토나도
분명, 더 이상 상처입는 일 따윈
ありはしないとわかっている
아리와 시나이토 와캇테이루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있어

あの日の悲しみさえ あの日の苦しみさえ
아노 히노 카나시미사에 아노 히노 쿠루시미사에
그 날의 슬픔조차, 그 날의 괴로움조차도
そのすべてを愛してた あなたとともに
소노 스베테오 아이시테타 아나타토 토모니
그 모든 것을 사랑했던 당신과 함께
胸に残り離れない 苦いレモンのにおい
무네니 노코리 하나레나이 니가이 레몬노 니오이
가슴에 남아 떠나지 않는 씁쓸한 레몬의 향기
雨が降り止むまでは歸れない
아메가 후리아무마데와 카에레나이
비가 그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
今でもあなたはわたしの光
이마데모 아나타와 와타시노 히카리
아직도 당신은 나의 빛

暗闇であなたの背をなぞった
쿠라야미데 아나타노 세오 나쥬타
어둠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덧그렸어
その輪郭を鮮明に覚えている
소노 린카쿠오 센메이니 오보에테이루
그 윤곽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受け止めきれないものと出会うたび
우케토메키레나이 모노토 데아우 타비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마주칠 때마다
溢れてやまないのは涙だけ
아후레테 야마나이노와 나미다다케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은 눈물 뿐

何をしていたの 何を見ていたの
나니오시테이타노 나니오미테이타노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을까
わたしの知らない横顔で
와타시노 시라나이 요코가오데
내가 모르는 얼굴을 하고서

どこかであなたが今 わたしと同じ様な
도코카데 아나타가 이마 와타시토 오나지요오나
어디선가 당신이 지금 나처럼

涙にくれ 淋しさの中にいるなら
なみ다니쿠레 사비시사노 나카니 이루나라
눈물이 주는 쓸쓸함 속에 있다면
わたしのことなどどうか 忘れてください
와타시노 코토나도 도오카 와스레테쿠다사이
나같은 것 따윈 부디 잊어주기를
そんなことを心から願うほどに
손나 코토오 코코로카라 네가우 호도니
그런 것을 진심으로 바랄 정도로
今でもあなたはわたしの光
이마데모 아나타와 와타시노 히카리
지금도 당신은 나의 빛이야

自分が思うより
지분가 오모우요리
나 자신이 생각한 것 보다도
戀をしていたあなたに
코이오 시테이타 아나타니
사랑했던 당신에게
あれから思うように
아레카라 오모우요우니
그날부터 생각대로
息ができない
이키가 데키나이
숨을 쉬지 못하겠어
あんなに側にいたのに
안나니 소바니 이타노니
그렇게나 곁에 있었는데도
まるで嘘みたい
마루데 우소 미타이
마치 거짓말같아
とても忘れられない
토테모 와스레라레나이
어떻게 해도 잊을 수 없어
それだけが確か
소레다케가 타시카
그것만이 확실해

あの日の悲しみさえ あの日の苦しみさえ
아노히노 카나시미사에 아노히노 쿠루시미사에
그 날의 슬픔조차, 그 날의 괴로움조차도
そのすべてを愛してた あなたとともに
소노 스베테오 아이시테타 아나타토 토모니
그 전부를 사랑했었던 당신과 함께
胸に残り離れない 苦いレモンのにおい
무네니 노코리 하나레나이 니가이 레몬노 니오이
가슴에 남아 떠나지 않는 씩씩한 레몬의 향기
雨が降り止むまでは歸れない
아메가 후리아무마데와 카에레나이
비가 그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
切り分けた果實の片方の様に

키리와케타 카지츠노 카타호오노 요오니

잘라서 나눈 과일의 한쪽 같이

今でもあなたはわたしの光

이마데모 아나타와 와타시노 히카리

지금도 당신은 나의 빛인걸

<https://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30952294>

평소에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은 아니다.

일본 음악은 애니메이션, 밈(사쿠란보 같은)이 아니면 더더욱 잘 안 듣는 편이고...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해서 나중이라도 어떻게든 접하게 됐겠지만

이것도 2020년 즈음에나 처음 제대로 들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딱 좋아하는 느낌의 곡이라 제목을 알고 나서는 이후에도 간간히 찾아 들었다.



오늘 처음 이 노래의 MV를 보았다.

뮤비 해석도 찾아보며 몇 번 돌려봤는데

기억에 남은 키워드는 반쪽이다.

떠나간 반쪽과 남은 반쪽.

떠나간 곳이 사후세계라면 아마도 노래는 남은 반쪽의 이야기일 것이다.

산 자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의 이야기 또한 산 자에 의해 쓰여진다.

죽는다는 것이 슬픈 이유는 그것이 정말 끝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대다수의 끝은 슬프다.

불필요한 웹 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문구를 보면 조금이라도 잠시 망설이게 되더라.

자살이 아닌 이상 죽음은 끝을 알 수 없고 필연적이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마치 러시아인 룰렛처럼.

이제 보니 레몬 반쪽의 단면은 러시아인 룰렛에 쓰이는 리볼버의 실린더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슬픔은 남은 반쪽의 몫이다.

떠나간 반쪽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내 눈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 아닌지 남은 반쪽으로는 알 수 없다. 남은 반쪽은 그저 행복을 빌어주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남길 뿐.

짝사랑, '아리랑'의 화자가 떠오르기도 한다.

애절한 감정을 담은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지만 아마도 상대에게 닿지 않을 메시지라는 건 이 노래와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에는 의미가 없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떠나간 반쪽에게 메시지가 전해질 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슬프고,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있다. 분출구가 필요하니 어떻게든 표현하고, 공유할 뿐이다.

전해지고 말고가 얼마나 중요할까? 잊기 위해서 표현했으니, 나중에 잊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잊지 않고 싶겠지만, 잊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떠난 뒤에 나를 계속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주기라도 한다면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떠난 곳에 미련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못 돌아갈 텐데, 미련 남기지 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지.

비슷한 노래로 '아이유(IU)'의 '에잇'이 생각한다.

'Lemon'이 좀 더 슬픔을 많이 지운 상태인 것 같아서 좋다. 재회보다 나를 잊고 행복하길 좀 더 바라는 것 같아서.

아직은 반쪽보다 하나일 때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 학생에게 학생다운 모습이 어울리는 것처럼. 지금의 감정에 충실하자.